World Mission University 26th Annual

COMMENCEMENT

Saturday, June 3, 2017 | 1:00 pm | Mijoo Peace Church

www.wmu.edu

CONTENTS

" 우리가 개혁의 주역 들입니다."

송정명박사
월드미션 대학교 총장

오늘 우리는 스물 여섯 번째 학위 수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학교와 오늘 졸업하게 되는 졸업생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우리 학우들을 잘 양육하면서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들과 학우들을 섬겨 주셨던 교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님들의 재정적인 뒷바침과 후원 이사님들과 기도의 동역자들의 관심과 사랑도 잊지 못할 감사의 조건 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고 힘이 되어 주셨던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은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학 기술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자리매김을 한지가 오래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변화의 물결은 쓰나미 같이 몰려 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섬겨 나가야 할 교계는 아직도 변하고 개혁 되어야 할요소들이 너무 많이 산적 되어 있는것 같이 보입니다.

금년은 교회적으로 마틴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일어선지 꼭 500 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가 됩니다. 이곳 저곳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개혁이 무엇을 의미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까?

개혁은 한 마디로 말하면 변화 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내걸고 있는 Catch Phrase도 변화 입니다. 먼저 내가 말씀으로 변화 받아 이 세상을 변화 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졸업을 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주역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도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개혁의 한 모퉁이를 맡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변화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 되어야 개혁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자세가 뒷 바침이 되어야 가능 합니다.

이제 사역 현장으로 나가시는 우리들이 먼저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고 개혁 현장에서 주역으로 섬겨 나갈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때 지금까지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양육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 하며 또 다른 값진 사역을 감당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축하합니다 "

_ 총 54 명 _

대학 (24명)

BACC (14명)

고지연 김미숙(NV) 김미숙(WA) 김제란 김치훈 박명성 백덕희 원혜지 위클라라 이한성 임명규 장헌고 정구용 채정원

BAM (1명)

이보은

BABS (9명)

김석현 김지환 김현모 민재원 박종명 이득봉 이정원 이혜숙 최명옥

대학원 (30명)

MACC (6명)

강지훈 김종숙 오경득 왕은정 최남수 최문희

MAM (1명)

윤은경

M.Div (22명)

곽동현 김규성 김금자 김동환 김숙희 김 죤 김진이 라인근 마명희 문현주 박주홍 박효순 설영대 손지영 유정인 이문옥 이순영 이현수 임철현 정문경 정영도 허윤아

D. Min (1명)

이종임

재학생 송사

박노현
학생회장 (2016 - 2017)

'사람의 가치를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직업, 돈, 명예에서 찾는 듯 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며 살아간다. 누군가를 앞지르지 않으면 뒤쳐져 버리는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정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돈, 명예가 그 사람을 정의하는 가치일까?

월드미션대학교에서 1년 동안 학생회장으로 섬겼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즐겁게 일을 했다. 임원들과 일을하며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하나 있다. '함께' 라는 말이었다. 회장에 선출되고 가장 먼저 했던 말이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회가 되고 싶다' 는 말이었다. 뒤돌아 보면 교수님들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 분들과 학우들의 참여와 도움으로 일이 진행되었다. 또한 임원들이 저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함께해 주었기 때문에 정말 기쁨으로 보낸 시간이었다. 이처럼 월드미션대학교라는 이름 아래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밀어주고, 끌어주며 지금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함께' 라는 말의 가치는 더 빛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신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 다른 무엇으로 그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다른 무엇으로 대체불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 인 것이다.

월드미션대학교의 사명은 '성경적 교육을 통해 변화 받아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이다.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라 생각을 해 보았다. 이제 우리는 또 다시 누군가를 교회로, 선교지로 나아가 세상으로 파송을 하는 시기를 앞두고 있다. 학교 생활을 하며 어떤 이들은 신학을 통해, 어떤 이들은 상담을 통해 또 어떤 이들은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다. 그리고 저마다 배우고 만난 하나님을 전해 주어야 하는 길에 서게 되었다. 이제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치는 돈, 명예, 직업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외쳐야 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이다.

세상은 무한경쟁 속에 당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가진 것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된다. 하지만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성경을 바탕으로 교육을 받은 우리들은 사람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것이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것이다. 또한 자신의 가치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의 가치는 돈, 명예, 직업이 아니라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알려 줄 것이다. 이렇게 세상에 당당하게 선포할 선배님들의 모습이 눈에 그려보게 된다. 또한 졸업을 눈 앞에둔 선배님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발견한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졸업생 답사

M.Div. 허윤아
졸업생 대표

졸업 가운을 입고 이 자리에 서보니 지난 4년 반의 기간이 눈 깜박한 듯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지요. 저에게도 이 기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낸 짧고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시작과 끝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좋으신 하나님의 손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분이 없었다면 학업의 시작과 마무리가 없었음에 그 분만이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몇 년 월드미션대학교 선배들의 졸업식에 참석할 때마다 졸업생들을 향한 존경과 함께 밤마다 수업참석과 과제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끝까지 학업을 마쳐서 저 자리에 서 봐야지 라는 각오를 새롭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드디어 오늘의 졸업으로 말미암아 과거 학업에 있어서의 실패와 포기에 대한 상처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WMU)는 총장님 이하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학교입니다. 특히 WMU는 미국 서부의 한국계 기독교 대학으로서는 최초로 2011년에 ATS(신학대학원 협의회)의 인준을 취득했습니다. 최초라는 타이틀에 걸 맞는 알찬 커리큘럼과 교수님들의 열정 그리고 도서관의 한국어 장서는 한인 신학 대학뿐 만 아니라 주류 신학대학교에 내놓아 견줄만합니다. 신학과, 목회학과, 기독교상담학과 그리고 음악과의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조화를 이루며 시너지를 내는 WMU의 졸업생임이 자랑스럽습니다.

졸업생들 중에는 낮 동안 파트타임으로 풀 타임으로 사역하고 일하며, 매일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수업을 감당합니다. 밤을 새워 과제를 묵묵히 해나가며 그럼에도 학교 행사에 앞장서서 자원하셨던 온 캠퍼스 졸업생학우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원격으로 공부를 하셨던 학우님들. 선교현장을 비롯한 삶의 현장에서 사역하시면서 인터넷 사정도 좋지 않고, 컴퓨터에 앉을 시간조차도 내기 힘들며, 교과서나 교재를 구하시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또한 열정적으로 학업에 정진하셨던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 나라에 진지한 원격학우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선교와 사역 경험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깊은 토론으로 나만의 신학을 정리하고, 사역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격려와 자극을 받았기에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재학생들을 통해서 훌륭한 월드미션대학교의 전통이 세워지고 발전하고 있기에 모든 분들께 존경을 보냅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제 컴퓨터 파일은 한 학기에 3과목씩 차곡차곡 쌓여서 총 23개의 과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 중 하나는 송정명 총장님의 목회사역입니다. 비록 교실의 강단에서였지만, 학우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축도를 하며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송 총장님의 사역자의 메달이라는 말씀을 저의 가슴에 새겼습니다. 출신 학교는 동메달이고, 설교 잘하는 것은 은메달이며, 금메달은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와 인격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비록 교실 안에서 송총장님에게는 뼈아픈 B학점을 받은 학생이지만, 하나님에게는 A학점을 받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훌륭한 월드미션대학교의 졸업생이 되고, 설교도 잘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현장에서 인격을 갈고 닦아 진정한 금메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설교 3과목과 조직신학 2과목의 수업을 지도해주신 임성진 부총장님. 매 학기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만나며 엄청난 양의 과제와 설교를 준비하게 해주신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후배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존경하는 교수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사역에 대한 비전을 세웠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월드미션대학교의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은 담당하시는 강의시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교내 동아리 활동과 지도를 위해서 주말에도 방학 중에도 애쓰시는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입생 환영회 때 소개받은 독서동아리 '콩나물시루' 에 가입하여 첫 학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낯선 캠퍼스 생활에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독서는 창조임을 강조하는 송운철 지도교수님을 통해서 사회 속에서 자기로서의 기여와 정의 실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드리며, 모든 학우님들에게 감히 권하기로는, 학업과 사역의 현장에서의 배움과 경험들을 책 읽기를 통한 내적 자아 발견으로 고유의 빛깔과 향기로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데 시너지를 더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졸업생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신 월드미션대학교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이제 졸업 후에, 뉴 멕시코 주의 크리스천비전아카데미 북미 원주민 선교센터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입학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교회사역자로 또한 선교사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말씀으로 변화 받아 세상을 변화시킨다" 라는 우리 월드미션대학교의 캐치 프레이즈를 따라, 모든 우리 졸업생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오늘 참석하셔서 격려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 동안 기도해주신 가족, 친지, 지인 그리고 성도 여러분, 월드미션대학교 관계자들, 목사님들과 교회의 사역자님들! 모든 분들께 졸업생을 대표하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오직 한 분 찬양 받으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이란 내담자의 기도 골방에 함께 있는 것이다."

김화자 교수
Director of MACC

어떻게 잘 도울 수 있는가?
대학원 수업 중 한 과목에서 본인이 상담을 받아보고 그 경험을 리포트로 제출하는 과제가 있다. 어느 학생이 주변에 상담 전문가가 없어서 상담을 6개월 정도 공부한 교회 사역자에게 상담 요청을 하고 만났던 이야기를 리포트로 제출하였다. 처음에 경청하고 공감을 잘 해줘서 자신의 문제를 잘 상담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문제를 내놓자 그 사역자가 몇 초 동안 빤히 쳐다보더니, 학생의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만 하고 나온 실망한 경험이었다. 이 이야기를 리포트에서 보고 너무 웃기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다. 도움을 기대하고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마음도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을까! 그런데 왠지 익숙하지 아니한가? 이 서투른 상담자처럼 어떻게 해야 될 지 몰라 그저 기도하자고 하는 상황이 말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담을 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더욱이 어떤 종류이건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상담을 해주기를 기대받는 위치에 있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누가 상담해오면 무슨 말을 해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 어떻게 상담을 잘하느냐에 대해서는 월드미션대학교 상담대학원에 들어오면 된다. 그러나 어떻게 잘 상담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어떤 상담자가 되어야 하는지, 왜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는지가 상담을 잘하게 되는 과정을 기꺼이 견뎌내도록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상담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상담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다. 주변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보이는가? 기독교 상담자의 모델은 예수님이다. 상담자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상담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분의 사랑, 긍휼, 인에인애, 자비 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모습들은 우리 모두 닮아야 하는 모습이지만, 그중에서 상담자에게 꼭 있어야 하는 모습을 몇 가지만 살펴보자.

예수님 친구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 창녀와 병자들의 친구다. 일반 사람들에게서 소외된 사람들, 다른 사람과 쉽게 동등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 열등감과 수치감을 가진 사람들, 질병이 있는 사람들, 깨끗하지 않아서 깨끗한 무리에 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정죄하거나 탓하지 않으시고 받아 주신다. 자기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을 기꺼이 맞아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을 찾아 나서고,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고 사귀신다. 이것은 예수님의 수용하는 마음이다. 상담자에게는 이처럼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 마음을 갖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이처럼 정죄하지 않고 수용하는 마음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상담자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장면은 타락한 세상에서 죄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와 아픔을 드러내는 곳이기에 그러하다.

상담은 고상한 일이 아닐 수 있다. 상담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친구가 평생 한 사람도 없는 사람, 남을 이용해서라도 내 것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 이용당하기만 하던 사람, 삶의 의욕이라고는 없는 사람, 너무나 두려움이 많아 숨조차 잘 쉬지 못하는 사람, 센스가 없어서 늘 왕따를 당하는 사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 중독과 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교양있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로 둘러싸인 나의 일상에서는 잘 마주치지 않을, 상담이라는

다리가 없이는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다. 내가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마주하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또한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아파도 성숙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상담을 공부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본인의 영적 심리적 성숙이다. 남을 잘 돕기 위해 공부하는데 이 과정에는 계속해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상담자는 자신의 성장이나 성숙에 열려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상담공부가 재미있고 즐겁지만, 때로는 아프다. 그 아픔이 없이는 상담자로서 성장할 수 없다. 하나님의 초대는 늘 풍성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나의 불순물들이 다루어져야만 한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중에 자신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가! 스스로 자신의 이슈들을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고, 그것들을 다루어야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상담은 어떤 연장이나 수술 도구가 없이 상담자 자신만이 내담자와 마주하기 때문이다. 즉, 상담자 자신이 연장이고 수술 도구인 것이다. 수술 도구가 뭉툭해서 수술을 할 수 없으면 안 되듯이, 상담자는 단련이 되어서 예리해져야 한다. 스스로가 직접 예리한 하나님의 수술 도구이다. 마치 예수님 자신만이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도구이셨듯이, 상담자는 그렇게 내담자가 먼저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타인과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을 얻도록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예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과정이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마음껏 두 팔을 벌려 상담자로 부르시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도 골방에 들어갈 수 있는 안전한 사람인가?
상담자는 누군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꺼내 놓은 대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상담은 기도의 골방과 같다. 이 골방은 문을 닫고 있는 밀폐된 공간이 아니다. 오히려 상담이라는 골방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것을 오픈하는 아주 넓고 큰 공간이다. 내담자의 과거와 무의식의 세계에서부터 지금 여기의 세계가 공존하는 무한하면서 유한한 공간이다. 몇십 년 동안 묻어 두었던 마음을 열어 보는 공간, 자신도 몰랐던 무의식적 의도를 깨닫는 공간, 깊은 두려움을 마주하는 공간, 새로운 시도에 대한 불안이 느껴지는 공간, 혼란스럽고 아픈 데 그래도 누군가가 옆에 있기에 안전한 공간 말이다. 내담자들에게 이런 말을 종종 듣는다.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그들의 비밀을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골방에 함께 있는 그 사실이 너무나 소중한 특권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다.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통찰을 얻고 그것을 진지하게 다루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런 내담자의 여행에 잠깐 동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상담자에게 주시는 특권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골방에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언제든 환영하시며,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하시며, 통찰력을 가지고 문제를 직면하고 다루기를 원하신다. 상담자는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 그 자리에 내담자와 함께 있어 주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13:34)

박숙경 교수
Director of MACC Online

우리의 가까이에는 마음의 고통과 상처로 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죠.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있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그 고통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렵고 힘든 때를 만납니다. 어느 순간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어딘가 숨어버리고 싶고 심지어 세상에서 사라지길 바랄정도로 헤어나기 힘든 아픔속에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이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옆에 있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외로움, 우울함, 스트레스, 갈등은 완화되고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경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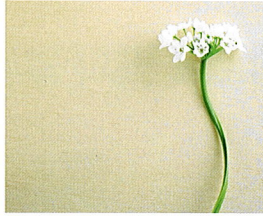
삶에 부딪혀오는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돌봄'을 주라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도움받기를 간절히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돕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미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간절한 도움을 청하지만, 사랑의 돌봄'을 줄때 싫어하는 몇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제 기분을 알고 있다고 이해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틀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제발 저를 몰아세우지 마세요, 어디로 갈지 저도 모른다구요."
"제가 해야 할일들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구요."
"그렇다고 제가 감당해야 할 짐을 가져가지는 마세요."

또한 그들은 우리에게 '사랑의 돌봄'을 제공 받을 때 요청하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저의 기분이 어떤지 물어 주시고 제가 제 기분을 이야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스스로 저의 분노를 저의 외로움을 말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귀로만 듣지 마시고 눈길과 어루만짐과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저에게 솔직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인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라고 말하기 보다 기도를 원하는지 물어주시고 제가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NO라 하면 그냥 받아주시고, 제가 YES라 하면 부디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위의 사항들처럼 그들이 원치 않는 것과 그들이 바라는 것을 구별하여 '사랑의 돌봄'을 준다면 아마도 그들은 우리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실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 실천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부터 "사랑의 돌봄'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님께서 하시듯 우리도 그렇게 말이죠.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결코 저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에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도다
>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 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 2-12절)

주님은 이미 우리보다 말할수 없는 더 큰 고통을 겪으셨기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의 눈물에 함께 우셨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며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함께 계셨던 그분이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 13:34)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송운철 교수
Director of M.Div

1998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했다. 다량의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었어 약 11만명이 도시를 떠났으며 지금도 방사능 물질로 인한 의료피해는 계속 되고 있다. 이런 초대형 사고는 대개 한두 가지 원인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경고 무시, 고의적 방임, 다수의 안전을 볼모로 한 기득권층의 사익 추구, 대중의 무관심 속에서 느슨해진 정부관료의 관리 감독, 학계와 재계의 결탁, 그리고 그로인해 경종을 울리지 않는 학자들 등이 만들어낸 참사다. 쌓이고 쌓인 폐단의 토양에서 오랜기간 자라온 암세포가 마침내 거대한 몸둥아리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는 이를 분명히 한다. "체르노빌은 우리나라 체제가 안고 있는 수 많은 질환을 드러내 놓았다. 이 드라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여왔던 모든 악폐가 얼굴을 들이밀고 나왔다. 괴이한 사건과 부정적인 프로세스의 은혜(묵살), 무책임과 나태, 직무방기, 이 모든 것들을 다 범벅으로 만들어 놓은 과음. 이것은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확실한 또 하나의 논거였다."

2011년 일본 도호쿠에서 대지진이 났고 그 여파로 쓰나미가 일어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강타했다. 원자로 6기 중 4기가 폭발을 일으켰으며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었다. UN 산하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그 양은 체르노빌 사고와 맞먹는다고 했다. 6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후쿠시마는 아직도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도시다.

지진이나 쓰나미는 피할 수없는 자연재해지만 원자력발전소는 그렇지 않다. 1990년대 말부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일본 내부의 비판적 성찰이 학계와 경제계에서 거듭 제기되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는 국민의 안전의식이 낮고,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안정적 전력생산과 공급을 필요로하고, 정부가 이를 관리하는 독재국가에서나 유행하던 형태의 발전소다. 일본은 그 단계를 지났으며 굳이 인구밀집 지역에 원자력발전소를 장기간 품고 있을 필요가 없는 체제 말기적 유산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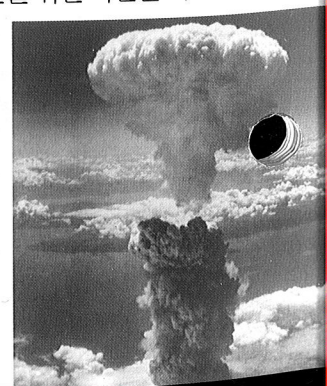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왜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지 않았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집단이기주의 때문이다. 전력회사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 전기를 안정되게 생산하면 하루 1억엔은 거뜬히 벌었다. 만일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기하면 1기당 3000억 엔에서 5000억 엔이 들어간 고가의 시설물을 하루 아침에 잃는 것이며 하루 1억엔은 공중에서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계속 가동했던 것이다.

집단 이기주의는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발견된다.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전력회사가 비용을 견디지 못해 망하면 수조 엔씩 융자해준 은행은 대출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전력회사의 사채와 주식을 사들인 보험회사나 투자회사는 거대한 손실을 본다. 정부의 설득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유지, 관리하는 일에 동원된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라며 해당부처와 관료의 목을 조여올 것이다. 여러 당사자들은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을 알면서도 추궁 당하지 않기 위해, 자기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미루면서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했던 것이다.

둘째는 원자력발전소는 일본 경제성장의 상징이라 보고 집착하는 눈먼 낭만주의자들 때문이다. 일본의 공업화 시대, 경제성장 시대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었다. 원자력발전소는 그 화려한 시대의 왕관이었고 빛이 바랜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 일본인들의 긍지와 우월의식의 뿌리였다. 위험성 논란에 귀막고 올드타이머들은 원자력발전소를 부여잡고 있었던 것이다.

작은 반대를 무시하며 일본사회는 원자력발전소는 계속 가동했다. 수리, 교체해야 시설을, 내구연한을 연장하고 안전규정을 어기면서 하루라도 더 전기를 생산했다. 나아가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 이익을 배가시키려 했다. 원전을 둘러싸고 조성된 크고 두터운 기득권층의 집단이기주의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낭만주의가 후쿠시마 주민들을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었다.

원전 운영을 감독하던 정부관료들은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임기 동안에는 소란스러운 결정을 하지 않으려 했다. 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협력업체도 침묵했다. 발전소가 정상운행 되어야 수입이 들어오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비평과 변화는 자신들의 은퇴 이후로 미루고 싶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바로 이런 집단이기주의와 수동적 직무유기에 찌든 일본사회의 체제 말기적 사건으로 체르노빌과 맥을 같이 한다. 두 초대형 사고는 순전한 자연재해도 아니고, 기술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했던 사고도 아니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태는 자기중심주의에 매몰된 기득권층, 비판과 경고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관련자들, 현재의 질서가 못마땅하지만 개혁의 과제를 후임자에게 넘기려는 안이한 조직의 수장, 공공의 안정을 해치는 시설과 그 운영에 대해 침묵하고 붓을 꺾은 학자들 등으로 비옥해진 토양에서는 자라난 독버섯이었다.
어느 조직이든 재앙을 피하려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자리 잡아야 하고, 사익 추구로 쏠리는 인간의 경향을 경계해야하고, 비판에 귀를 열어야 한다. 들어야 할 비판과 비판을 위한 비판을 가려내는 안목도 길러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조직이 생겨나고 사라진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인류가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학습 현장이다. 과거를 통해 배우지 않는 개인과 조직은 과거를 반복한다는 말이 기억난다.

영성훈련의 중요성

신선묵 교수
Dean of the School of Theology

영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의 지도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이 80세 생신 때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몇 가지만 나누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때 그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하였는데 첫째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둘째로는 신앙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써 순종해야 한다는 것, 세째는 모든 것 위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 첫번째인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다. 그가 29세 때에 영국의 대표적인 교회인 All Soul's Church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바쁘고 힘들게 그 사역을 감당 하였는데 한번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였다가 목회자들은 한 달에 하루는 떼어서 사역과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의 삶과 사역을 평가하고 바른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어야 한다고 도전을 받았다. 그 이후로 존 스타트 목사님은 교회에 돌아와 한달의 스케쥴을 보고는 우선 하루를 떼어서 Quiet를 의미하는 Q자를 적고 그 날에는 오직 비서에게만 있는 곳을 알려주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에서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하여 앞으로 있을 일들을 준비하고 자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 보고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생각을 정리하고 설교 시리즈 준비, 글쓰기 등의 시간을 가졌다.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작은 시간 조정을 한 것이 결국은 나의 생명과 사역을 살렸습니다. 책임감의 짐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때때로 사역으로 인하여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결코 그것들로 인하여 압도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의 삶이 더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이 Q Day를 더욱 자주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

달라스 윌라드의 "잊혀진 제자도" 라는 책에서 영성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데 그 열쇠는 다름 아닌 영적 훈련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은 바로 영적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만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을 얻기 위하여 경쟁하시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드려야 한다" 라고 하였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것들이다. 우리의 영혼이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욕심, 걱정, 두려움 등에 이끌려 다녀서 정말로 우리에게 참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을 드릴 여유도 없이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 혹은 신학적인 개념으로만 남아 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우리를 환란 가운데서 건지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시편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잠잠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찌어다." 너무나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 즉 영적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실체로 다가오고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윌라드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들이 기본적이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검증된 영성 성장의 수단들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약 성서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영적 훈련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규칙적인(regular) 사람들이 영적 냉담함, 혼란, 좌절,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사도 바울은 그의 나이가 50정도가 되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여 성도들을 권면하고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지도력의 가치관을 나누었다. 그는 21년을 사역한 사역의 전문가였지만 아직도 영적 훈련에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찌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같이 달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하노라. (고전 9:24–27) 또한 바울은 그의 나이가 65세나 70세 가량 되었을 때에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다. "망령되고 헛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딤전 4:7,8)

성경 속의 인물 뿐 아니라 역사 속의 또 우리 동시대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삶을 연구해보면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로버트 클린톤 교수는 많은 지도자의 삶을 비교 연구한 결과 "자신의 삶에서 영적 훈련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은 지도자들에 비하여 효과적이고 잘 마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고 관찰하였다.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 훈련을 감행해야 할 것이다. 이런 영적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 훈련을 거절하는 자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함을 소유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금희 교수
Dean of Undergraduate Education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귀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기가 바로 그 예입니다. 산소가 없어 호흡을 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곧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공기는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유지에 절대적인 공기를 우리는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공기가 거저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본래 지니는 소중함이나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공기가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지만, 그 귀중함과 가치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처럼, 구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이지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 즉 태도를 우리가 이미 지나온 과거,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이미 지나온 과거를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실하게 현재를 살아 낼수록, 우리의 미래의 삶은 더욱 더 풍성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미 지나온 과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알곡을 거두려면 가라지도 함께 두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심리학자인 융은 자아실현의 의미로 그림자의 통합, 즉 자아의 모든 부분을 수용, 통합해야 총체적 온전함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은 과거의 모든 경험은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이 모든 것을 감사로 품을 때, 비로소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는 말씀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사건과 사람과 상황이 우리 인생에 미친 영향력을 모두 사용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주제부가 있는 교향곡을 만들어 내시는 그런 멋진 분이십니다.

둘째, 여러분이 인내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영적 자세 가운데 한 가지는 '범사에 감사하라' 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는 것이 녹록치 않아,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하는 마음이 들 때가 더 많기 때문인가 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면 감사로 끌어안은 지나온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사건, 달갑지 않은 사람, 힘겨운 상황 등을 만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러한 삶의 경험들을 사람들은 흔히 세파라는 말에 비유하여, 지치고 고단한 인생을 말할 때 '세파에 찌든 인생'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살면서 큰 파도를 만났을 때, 그 파도에 휩쓸려 가라 앉지 않으려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등대가 비추는 빛을 향해 세파라는 거대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세파에 찌든 인생이 아니라, 세파를 헤치고 나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초청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슴에 소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삶의 키워드로 삼고 있는 단어 가운데 잠재력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잠재력이란 말을 생각할 때마다 희망이란 단어가 함께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을 좋아하게 된 사연은 저의 초등학교 시절 제 마음에 각인된 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5학년 때 일입니다. 주산학원 다니는 친구를 따라 학원을 방문하였다가 학원의 칠판 위에 걸린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는 문장이 제 마음에 꽂힌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학교에서 치룬 아이큐검사의 결과가 아주 낮게 나와 몹시나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천재에 대한 이런 정의는 가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때 접한 그 문장은 주눅이 들어 오그라진 저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와 '누구나 노력하면 된다' 라는 희망의 씨앗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겨진 희망의 씨앗은 저로 하여금 씨앗이 자라도록 생명력을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흡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핵심어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여 저에게 여전히 희망을 불어 넣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니 섣불리 '나는 이 정도의 사람' 이라고 스스로 한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잠재력을 펼쳐나가, 여러분 자신은 물론 주변의 사람들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위기

정종원 교수
Director of B.A. in Music Program

1980년대에는 개신교회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예배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었다. 개신교회가 가장 큰 찔림을 받은 것은 성찬에 대한 것이었다.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을 이어온 개신교회는 가톨릭 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말씀중심의 예배에 치중하다 보니 예수님이 부탁하셨던 성찬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이다. 하지만 성찬의 오용과 타락 때문에 예수님의 분부가 담긴 성찬 자체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개신교회는 성찬에 대한 재발견을 계기로 최소한 일년에 네 차례 이상 성찬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성찬의 횟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찬을 기대감으로 맞이하거나 감격을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이다. 교회가 성찬식을 자주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찬식을 통하여 감동을 경험하거나 그 감동을 지속할 자신이 없다는 두려움이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왜 점점 의미 없는 형식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복원이 될 수 있겠는가.

성찬의 어려움은 설교와 삶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성찬은 말씀에 대한 응답이며 적용이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보여 주듯이 설교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밥에 대해서 전달되었다면 실제 밥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식욕을 갖고 대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설교가 예수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보다는 지적인 도취감이나 자극적인 설교에 치중하면서 성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아하 ! 하는 깨달음 만을 추구하여 저 너머에 존재하시는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을 때 성찬은 먼 이야기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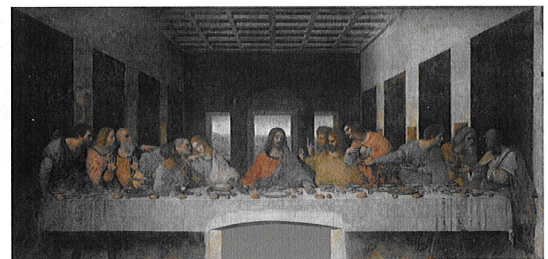
오늘날의 처세술이나 지혜에 만 치중한 설교들은 새로운 종류의 면죄부를 팔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감금하는 영적인 암흑기를 경험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성과 합리주의에 물든 현대인들은 성찬예식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주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기 긍정과 성취에 익숙한 청중에게 자기부정을 경험하는 성찬은 부자연스럽고 낯선 경험이 될 수 밖에 없다. 성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구조 때문에 성찬은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성도들의 삶의 약함을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다. 인격은 모순을 싫어한다. 내가 살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거나 거부감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거나 감정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과 갈망을 갖고 살지 못하면 성찬은 단지 의식과 연기에 불과하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자. 그 때는 의식이 훌륭해서가 아니었다. 바로 그 순간에 영적인 상태가 갈급했던 것이다.
예배는 갈망하는 영혼을 기다리시는 숨겨진 하나님의 임재이다. 그 어떤 의식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우리가 30분을 찬양해도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지만 5분만 찬양하고도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그 만큼 중요하다. 그러므로 성찬에 앞선 말씀의 예배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앞에 서도록 해야 한다. 성찬식을 의미 있게 맞으려면 예수가 크고 위대해 보여야 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깊게 느껴져야 한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먹고 마시듯이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전부였다.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먹고 마시자는 초대는 밥상을 맞이하는 것과 같았다.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께서 주신 용서와 치유, 사랑과 승리와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께 감사하며 선포하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그들에게 성찬은 영적인 식사였다.

이제 교회는 성찬을 한 방향으로만 보지 않고 여러가지의 프리즘으로 생각해야 한다. 주님의 식탁은 다양한 정신과 방법으로 기념되어야 한다. 성찬에 담긴 풍부함의 깊이를 경험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이고 의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성찬은 예배의 추가된 부록의식이 아니다. 응답의 시간과 공연을 창의적이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성도들이 그 날의 말씀에 비추어 성찬예식에서 어떻게 응답하며 참여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

성찬을 피할 수 없이 해야 한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굶주림으로 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굶주린 예배자들에게 밥을 먹는 의식은 어떤 식으로든 있어야 한다. 배고프면 다 맛이 있고 사랑하면 시인이 되듯이 예수를 갈망하고 사랑한다면 의미가 살아날 것이다.

이제 주님이 부탁하시며 꿈꾸셨던 성찬을 회복해 나가자 !

오직 믿음 (로마서 1:16-17)

M.Div. 마명희

I. 서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의 아버지는 전도사로서 하동군 악양면에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악양 성광교회'가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199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부모님 덕택에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는 매우 익숙하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설교를 통해 '중생'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중생이 무슨 뜻이며, 어떻게하면 제가 중생하게 되는 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년 전 독일의 마틴 루터는 자신의 구원 문제로 심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루터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든지 한때 그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I wish there is no God)"라고 한탄할 정도였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만약 그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그는 무슨 일이라도 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골방 구석에 마치 한마리의 짐승처럼 움크리고 앉아 하나님의 구원을 애걸했습니다. 그는 또한 무릎으로 거치른 돌계단을 하나하나 기어 올라가며 피를 줄줄 흘리는 고행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죄의 짐은 더 무겁게 그를 짓눌렀고, 자신의 어떤 노력도 그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강제로 면제부를 팔면서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신자들을 기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루터는 자기 교수의 권유로 성서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엄청난 기쁨과 환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의 빛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의 깨달음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우리가 갖지 못한 어떤 특별한 구원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사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I. 본론

A. 행위와 무관 (4:1−8)

본문에 의하면 구원은 행위와 무관합니다. 즉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마치 돈을 주고 구원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구원의 값은 너무 엄청나서 아무도 그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얻어야합니다. 공짜로 말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바 되었느니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사랑과 용서'를 뜻합니다. 사랑과 용서! 이 사랑과 용서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후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비록 경건하지 않은 죄인이었지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일컬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신칭의(以信稱義)'라고 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의가 행위가 아닌 믿음에서 났기에 그는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믿음을 원하십니다 (4−5).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믿음을 갖기보다는 온갖 행위들로 마음과 육신을 분주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B. 할례와 무관 (4:9−12)

어떤 이들은 할례를 통해 구원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러나 할례 역시 구원과 무관합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자유'를 뜻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성경은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것이다" (4:11)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도 받기 전에 그에게 '믿음' 이라는 도장을 찍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할례를 받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의로워졌다' 는 표시를 받은 것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 반지가 결혼을 했기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 구약의 할례에 대해 깊이 생각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언약 백성으로 치신다면, 할례와 상관이 없는 우리 여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3장 30절은 이에대한 해결책을 명쾌히 답변해 줍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십니다. 할례와 상관 없이 우리 이방인들도 믿음 하나로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니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믿음은 이렇게 powerful합니다. 할례라는 국경선도 무너뜨려버립니다.

C. 율법과 무관 (4:13−15)

구원은 또한 율법과 무관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율법을 100% 다 준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심히 죄되게(7:13) 하고, 죄를 더하게 하고 (5:20), 죄를 깨닫게 하고(3:20), 모든 인간을 심판 아래 가두는 (3:19) 것입니다. 율법은 이처럼 우리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지만, 우리 죄 자체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도 한결같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믿음의 반열에 오르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16). 믿음의 파워는 율법도 뛰어 넘습니다.

D. 믿음에 의함 (4:16−25)

구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믿음은 '믿는다' , '맡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이였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어 마음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박국에 있어서 믿음이란 지금 당장 하나님의 공의가 악하고 부패한 사회와 인간들에게 시행되지 않을지라도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 2:4) 는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루터의 믿음 역시 인간의 구원이 어떤 행위나 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롬 1:17)는 말씀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역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만큼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연약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염려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사건이 터지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엡 2:8).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서 난다고 했습니다 (롬 10:17). 찬송가 "울어도 못하네" 4절이 생각납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구원은 우리의 어떤 경건한 모양이나, 봉사나, 헌금이나, 선교나,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III. 결론

성경은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할례도, 어설픈 율법의 준수도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중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중생' 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중생의 정의는 '마음이 바뀐 것" 입니다. 저는 아직도 불완전하지만, 제 마음의 중심이 이전에 자기 중심적이었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완전히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분의 사랑의 행위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치 원자탄과 같이 파워풀 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지옥에서 끌어 올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가나안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의 후배들입니다. 그가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호도했을 때 그는 분연히 일어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SOLA FIDE!"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교회에 속해있는 교인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루터가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불신자를 향하여 이 단순한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더욱 깊어지는 사랑

M.Div. 마명희

초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어느날 밤 하늘에 초롱초롱 빛을 발하는 별들을 보며 조용히 혼자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저는 그 때 제가 가졌던 생각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전은 결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연관된 비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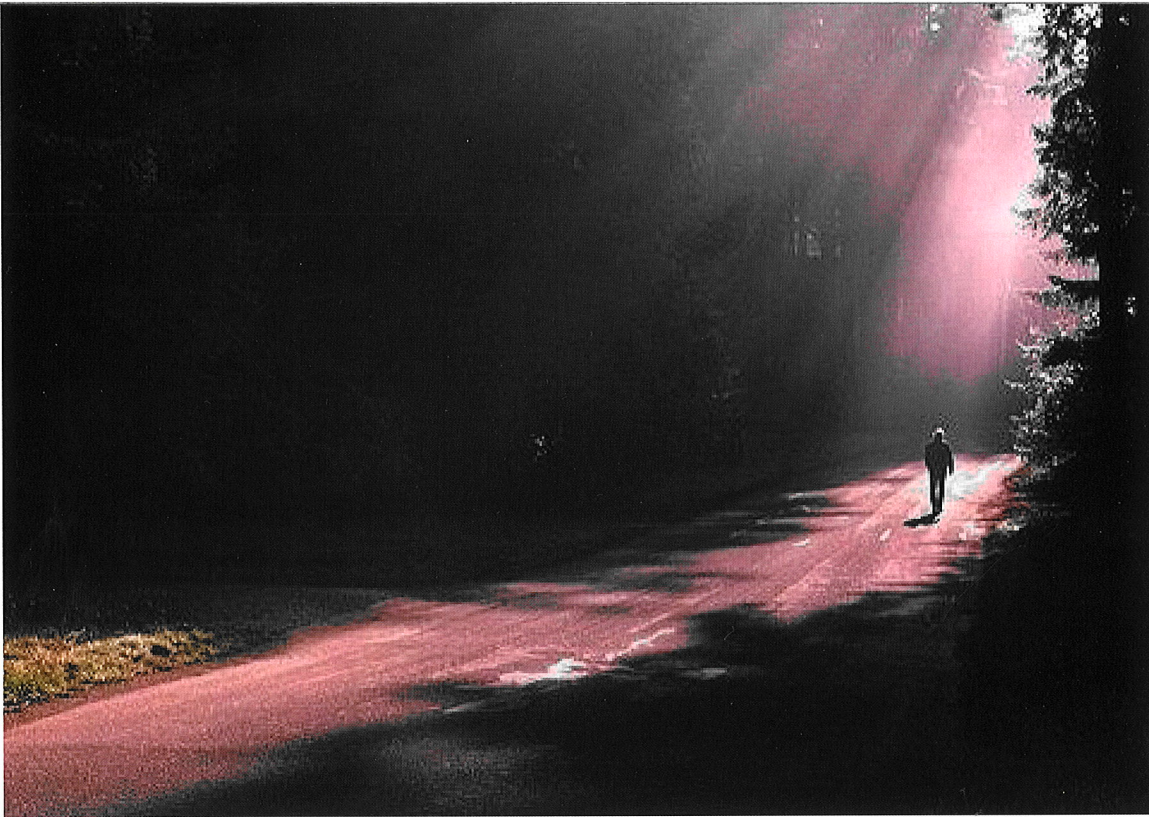
그런데 저의 학창시절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아버지가 가난한 시골교회 전도사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오랫동안 먹고 살았던 반찬은 대부분 간장과 참기름에 밥을 비벼 먹거나 아니면 된장에 멸치를 찍어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어른이 될 때까지 한번도 짜장면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간호대학에 다니던 어느날 저는 C.C.C 전국 대학생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갔었던 수련회 장소는 미류나무가 우거진, 심천 미류나무 숲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 때 불렀던 노래를 혼자 흥얼거리며 향수에 젖곤 합니다.

>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제자 다시 만나시사
>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 미류나무 우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
>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네게 달렸나니
>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저는 그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다" 는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 한 후 하나님은 저를 선교사로 불러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저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까요? 전도를 많이 할까요? 봉사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것이 아니냐?
> (신 10:12-13).

이런 일이 있은 후 우리 부부는 1990년 12월 미국에 오게되었고, 저는 삶을 통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하나님의 훈련학교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남편이 병들어 점점 죽어갔습니다. 장기간 복용한 다량의 약은 새로운 건강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상태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악화되었고, 나중에는 대장파열로 인한 인공항문을, 척추 골절로 인한 흉곽 브레이스를, 호흡곤란으로 인한 산소를, 무릎의 아픔으로 인한 휠체어를, 그리고 시력상실로 인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남편이 돌아가시기까지 12년동안 그의 아픔과 함께 하면서 늘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미국 문화 속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간호해 가면서 미국 간호대학을 다녔습니다. 서투른 영어 실력때문에 거의 매일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인들과 함께 직장생활 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사고방식 및 예의를 배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노골적인 인종차별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째, 기독교인들과의 인간 관계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례했으며, 배신했으며, 이용했으며, 오해했으며, 억울하게 했으며, 미워했으며, 거절했으며, 화를 냈으며, 무시했으며, 흉을 보았으며, 심지어는 어떤 특별한 이유없이 저를 따돌리기까지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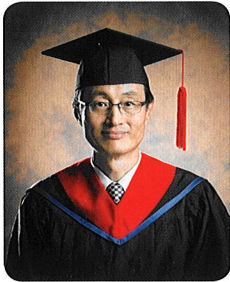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유방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홀로 미국에 남게 되었는데 암이라니… 참으로 기가막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를 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할 때 옆에서 지켜봐 주는 가족도 없이 홀로 수술실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 때 저는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저는 한 때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중요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침내 주님께서 저의 질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모래밭에 루비와 같은 존재란다."

저는 대학시절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만 했습니다. 병으로 죽어가는 남편을 인내함으로 사랑하고, 인종차별하는 미국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온갖 방법으로 아픔을 주는 크리스천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은 저에게서 바라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상처받고 울 때마다 바로 제가 주님께 그런 동일한 아픔을 주며 살아왔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영적으로 미숙했던 저를 World Mission University로 인도하셨습니다. 일하며 투병하며 공부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지만 온라인(Online)으로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리 Online학생들을 섬기시는 김박선미 과장님과 모든 원격과정 교직원들은 언제나 친절한 도움을 주셨고, 학교는 어려운 형편가운데 처한 저에게 장학금의 혜택을 주었으며, 학교의 교수님들과 학우들은 기도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갔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더 사랑하는 존재로 변모해 갔습니다. World Mission University의 "말씀으로 변화받아 세상을 변화시킨다" 는 캐치 프레이즈는 제 삶을 관통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부르심을 더 견고히 해 주셨습니다. 저를 선교사와 아론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과 저 어두운 세상에 사랑의 메신저로 보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교는 때로 우리의 목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면 순교하길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무례한 기독교? 교양있는 그리스도인!

부제: 리처드 마우(Richard J. Mouw)의 "무례한 기독교"를 읽고

M.Div. 임철현

사람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언어 중의 하나가 "교양없는 사람" 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배울 상식조차도 못 갖춘 "무례한 자"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례한 기독교(Uncommon Decency)", 이 책은 나에게 제목부터가 별로 호감을 주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 챕터 마음에 드는 주제 관련 내용만을 읽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분들을 다 읽고 난 후 나는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시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을 통해서 논지를 펼쳐나가는 저자 리처드 마우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많은 점에서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책은 나에게 예기치 못한 기쁨을 주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선택하여 읽다 보면 두 종류의 예기치 않은 경우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는 이 책을 괜히 읽기 시작했다는 실망감이 그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책을 읽어갈수록 그 책에 매료되어 빠져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무례한 기독교" 는 나에게 후자의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의 저자인 리처드 마우에 대한 약력을 살펴보았습니다. 1940년 미국에서 태어난 저자는 17년간을 칼빈대학교(Calvin College in Gran Rapids)에서 기독교 철학과 윤리학을 가르친 철학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경력 중 특이한 것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신학 노선에서는 복음주의를 고수하면서도 다른 신학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많은 환영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바드 대학 신학부와 같은 진보적 신학교에서도 자주 초청되어 강연하는 학자로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이런 약력도 나에게는 이 책을 다시 처음부터 읽게 한 이유였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 나에게 가장 큰 도전을 준 부분은 "열린 마음을 강조한 시민교양" 부분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의 신앙과 종교 생활에 있어서, 일단19세기까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20세기 초반을 넘어설 때까지는 남녀 평등이나 인종 갈등의 이슈들로 고민하다가, 그 단계의 고민을 넘어 새로운 이슈들을 맞이한 때가 대략 1980년대입니다. 이 때부터는 각 교회나 개인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 종파와 사이비 종교에 대한 대비와 바른 신앙의 보전이 교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급격하게 새로운 쟁점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각 종교간의 대립과 사람들의 신앙 윤리관 차이로 촉발된 반목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라크 전쟁에 이어 IS(Islamic States)와의 전쟁으로 야기된 정치/종교간 대립이 그 한 예이며, 갈수록 노골화되는 음란 문화와 동성애 관련 이슈들에 대한 교회와 교인들의 대처 방안이 또 다른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의 문화 종교 전쟁 시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의 태도에 대해, 저자는 열린 마음에 근거한 "시민교양" 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시민교양 " 이란, 우리 자신과 타인 간의 심리적 간격을 좁히기 위한 "공감적 감정이입" 에서 시작되는 개념으로, 기독교인은 다른 신앙과 신념 그리고 다른 가치들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신앙 그리고 가치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일을 위해 무엇보다도 친절과 정중함 그리고 인내와 같은 덕목을 갖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 저자는 바울이 제시한 "성령의 열매" 덕목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령 충만한 신자에게 가장 적합하게 요구되는 덕목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자는 기독교 신자가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기독교적인 신념까지를 양보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인 종교적 신념은 물론, 외적으로도 행동하는 양심을 꼭 말로 하는 표현은 아니더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각각의 신념이나 가치에 모두 친절하고 온유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자신의 강한 신념을 지켜갈 수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저자의 대답은 "쉽진 않지만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내린 결론은 "신념있는 시민교양(convicted civility)" 을 지닌 기독교인이 그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신념있는 시민교양" 을 지닌 기독교인이란,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려는 순박한 믿음을 지녔으면서도, 다른 신앙과 가치를 가진 타인과의 심리적 간격을 좁히려고 노력하는 '열린 마음' 을 가진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나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은 내용은, 제8장 "다른 종교의 도전"에 나오는 논지였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다문화/다원주의적 삶의 방식이 현대 생활의 독특한 특징 중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저자는 기독교인의 시민 교양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원주의 사회를 맞이하는 현대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역시 "열린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먼저 마음을 여셨기 때문이라고 논증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신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더 언급하는 것은, 다른 문화(예를 들면, 이슬람 또는 동성애 등)가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온다고 해서 두려워하며 피해서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원화" 또는 "다양화" 그것이 현대 사회의 추세라면, 그리고 그 문제가 시대의 자연스런 현상이든 아니면 인간의 죄 때문이든 그리고 그것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유익인지를 진지하게 따져보며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또 다른 이슈는, 이렇게 다른 종교나 문화의 도전을 받는 현재 상황에서 "과연 기독교인의 복음전도 방법은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저자는 "전도론자"들이 주장하는 '복음 중심 전도법'과 "대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관계중심 전도법' 가운데 어느 것이 현 시대에 더 알맞은 방법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다른 종교 단체에 속한 사람과 나누는 모든 대화를 한갓 전도를 위한 전략만으로 여겨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후자인 대화론자의 방법 즉 '관계 중심 전도법'이 고상하고 적절한 즉 교양있는 접근법이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요즘의 전도방식과 관련해서 "과연 나 자신은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나?"를 생각해보게 되었고, 나 자신은 대화론자의 입장에 서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론자의 비타협성과 독단주의적 행태가 제 눈과 귀에 거슬렸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신약성경의 어디를 봐도 관계를 무시하고 복음전도만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복음을 권하는 예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전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복음전도를 위한 열정과 관심은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고, 또한 상대 문화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원화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양있는 자세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도방법을 저는 '복음 중심 관계 무시 전도법'이 아닌 '관계 중심 복음 전도법'이라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끝으로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여전히 교양있는 그리스도인의 훌륭한 모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례하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교양있는 그리스도인은 타인에게 열린 자세를 취함으로서, 말로 다 표현하진 않지만 '가리키는 행동'을 통해서 '가르치는 리더쉽'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이런 책을 읽고 나누게 해준 월드미션대학교의 '콩나물 시루'(글쓴이 주 : 학교 내 독서클럽 이름) 멤버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2017년도 학위수여식

2017년 6월 3일 (토), 오후 1시 | 인도(Presider): 임성진 부총장

* 입 장 (Opening Procession) .... 순서담당자, 교수단, 졸업예정자
* 개 회 선 언 (Opening Announcement) .... 인 도 자
기 도 (Prayer) .... 윤임상 교수
광 고 (Announcement) .... 인 도 자
학 사 보 고 (Academic Report) .... 인 도 자
학 위 수 여 (Conferring of Degrees) .... 총장, 부총장, 이사장
[Degrees Granted: BACC, BAM, BABS, MACC, MAM, MAT, M.Div, D.Min.]
축 가 (Congratulatory Song) .... 김유리 학우
총 장 훈 화 (President's Farewell Address) .... 송정명 총장
졸업생답사 (Graduate's Response) .... 허윤아 학우
* 헌신의기도 (Litany of Dedication) .... 졸업생, 회중, 교수단 .... 인도: 고지연 학우

인도자: 이제 학위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졸업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를 당신의 뜻을 따라 인도하소서.
인도자: 졸업생 여러분,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졸업생: 교회와 세상을 위한 말씀중심과 선교중심의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인도자: 성도 여러분, 졸업생들이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회 중: 편협한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온 세상이 치유함을 받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소서.
인도자: 졸업생 여러분,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졸업생: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을 당신께 드립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당신의 충성스런 종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인도자: 존경하는 교수님들, 오늘 졸업하는 저희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단: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를 떠나 새로운 사역의 현장으로 떠나는 졸업생들을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줄 수 없었고, 저희들도 여전히 필요한 용기, 지혜, 믿음, 겸손, 온유, 따뜻한 마음을 저들에게 풍성히 주시옵소서.
인도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전 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이 경건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평화의 도구로 그리고 사랑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 교 가 제 창 (School Anthem) .... 1절: 졸업생 일동, 2절: 회중과 함께 .... 다 같 이
* 축 도 (Benediction) .... 이광길 교수
* 퇴 장 (Recessional) .... 다 같 이

학위수여 대상자 명단

BACC (14명)	고지연 김미숙(NV) 김미숙(WA) 김제란 김치훈 박명성 백덕희 원혜지 위클라라 이한성 임명규 장헌고 정구용 채정원
BAM (1명)	이보은
BABS (9명)	김석현 김지환 김현모 민재원 박종명 이득봉 이정원 이혜숙 최명옥

대학(24명)

MACC (6명)	강지훈 김종숙 오경득 왕은정 최남수 최문희
MAM (1명)	윤은경
M.Div (22명)	곽동현 김규성 김금자 김동환 김숙희 김 쥰 김진이 라인근 마명희 문현주 박주홍 박효순 설영대 손지영 유정인 이문옥 이순영 이현수 임철현 정문경 정영도 허윤아
D. Min (1명)	이종임

대학원(30명)

총 54명

수상자 명단

총 장 상: 허윤아, 오경득, 김미숙(NV)
부총장상: 김숙희, 박명성
이사장상: 김미옥, 장헌고
총회장상: 임철현
동문회장상: 김금자
ABHE상: 김지환, 강지훈
교 수 상: 채정원, 박종명, 유정인, 마명희, 정문경

졸업생 현황

* 졸업생수

과정	BACC	BAM	BABS	MACC	MAM	MAT	M.Div	D.Min	Total
2017	14	1	9	6	1	0	22	1	54
총계	50	19	312	25	56	53	311	4	829

본교는 26회에 결쳐 82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광 고

1. 2017년 제 26회 학위수여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2.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과 그 가족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객들께 졸업생들의 사역을 위하여 계속적인 기도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3. 장내의 질서를 위하여 모든 하객과 회중은 교수단, 이사진, 졸업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교의 발전과 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주신 세계복음선교연합회, 미주평안교회, 동문회, 이사진, 기도후원회, 그리고 모든 교직원과 재학생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월드미션 대학교 교가

씩씩하게
Allegro Moderato ♩= 120

임동선 작사
박재훈(1992.5.30)

1.주 님 이 부 – 르 – 셨 네 주 님 이 부 르 셨 네 추 수 할 일 – 꾼 –
2.주 님 이 보 — 내 — 시 네 주 님 이 보 내 시 네 죽 기 까 지 — 충 성

6

되 라 우 리 를 부 르 셨 네 체 력 학 문 연 마 하 라 인 격 영 력 길 러 보
하 라 우 리 를 보 내 시 네 모 든 민 족 제 자 삼 아 땅 끝 까 지 증 인 되

12

라 (길러보라) 주 – 님 (주님)이 부 르 셨 네 주 – 님 이 부 르 셨 네
라 (증인되라) 주 — 님 (주님)이 보 내 시 네 주 — 님 이 보 내 시 네

17

solo piano or orchestra 주 님 만 스 – 승 – 삼 은 우 리 월 드 미 션 대 학

21

교 주 님 만 을 스 승 삼 은 우 리 월 드 미 션 대 학 교

BRIEF HISTORY OF WMU

1989년 3월 27일 개신교 복음주의에 입각한 영적훈련과 학문 사이에 균형을 이룬
새 시대에 적합한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의 육성을 설립목적으로 월드미션대학교가 설립되었다.

1988. 11. 28	세계선교신학대학 이사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다.
1989. 03. 01	임동선 목사 학장으로 취임하다.
1989. 03. 01	이원희 목사 학감으로 부임하다.
1989. 03. 27	신입생 32명으로 본교 개강, Donald A. McGaveran 박사 초청 개교기념 특별강좌를 개최하다.
1991. 03. 18	신학석사(M. Div., M.A.)가주교육국 인가(BPPVE 94310)를 취득하다.
1992. 08. 18	대학학부 인가취득, 학부를 세계선교신학대학으로, 대학원을 세계선교신학대학원으로 하다.
1992. 09. 27	모스크바 세계선교신학원을 개교하다.
1993. 06. 29	종합대학교로 개편, 명칭을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로 변경하다.
1993. 12.11	총장에 임동선 목사, 부 총장겸 대학원장에 이정근 목사를 선임하다.
1999. 03. 25	개교 10주년 기념예배 및 행사를 거행하다.
1999. 07. 01	주정부 완전인가(Full Approval) 취득. 유아교육과, 평신도학과 인가를 받다.
2003. 01. 08	학교건물을 구입하다.
2003. 08. 23	새 교사이전 감사예배를 드리다.
2004. 08. 30	원격교육센터를 신설하다.
2005. 01. 24	음악학과(BAM/MAM)를 신설하다.
2006. 02. 17	ABHE로부터 Full Membership Status(정회원자격)을 부여받다.
2006. 06. 26	ATS로부터 Associate Membership Status(준회원 자격)을 부여받다.
2008. 02. 20	ABHE, TRACS로부터 일반학과, 상담학과를 인가받아 신설하다.
2009. 11. 03	TRACS로부터 Full Membership Status(정회원 자격)을 부여받다.
2008. 06. 07	원격교육과정 제 1회 졸업생을 배출하다.
2010. 11. 06	임성진 학감 수석 부총장으로 임명하다.
2011. 03. 25	ABHE로부터 Reaffimation Accredited Status(정회원 재인가 자격)을 부여받다.
2011. 06. 25	ATS로부터 Candidate Membership Status(정회원후보자격)을 부여받다.
2012. 06. 02	설립자 임동선 박사 초대 총장 이임/ 송정명 박사 2대 총장으로 취임하다.
2012. 08. 20	대학원 상담학과를 인가받아 신설하다. (ABHE, TRACS로부터)
2013. 08. 09	ATS로부터 Full Membership Status(정회원 자격)을 부여받다.
2014. 01. 13	한인기독교상담소 개설
2014. 04. 15	TRACS로부터 Reaffimation Accredited Status(정회원 재인가 자격)을 부여받다.
2014. 06. 07	개교 25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하다.
2014. 06. 25	ATS로부터 Online Comprehensive 인가를 받다.
2015. 05. 29	기숙사 건물을 구입하다.
2015. 06. 16	ATS로부터 목회학석사(M.Div)과정 Residential Exception 인가를 받다.
2016. 02. 02	ATS로부터 상담학석사(MACC)과정 Residential Exception인가를 받다.
2017. 02. 02	ATS로부터 교회음악학박사(DCM)과정 인가를 받다.
	ATS로부터 기독교상담학 석사(MACC)과정 OC Extension Site 인가를 받다.

- 연방정부 인가 프로그램
- 연방정부 Grant 무상교육 (유자격장에 한함)
- 온라인 프로그램 캠퍼스프로그램 및 htrid 프로그램으로도 수강 가능
- 본교 목회학석사진학시 50% 장학지원 및 추가 전입학점 인정 (수업연한 단축)

		전공학과 Programs	평균 수학 연한 Average Completion Time	진로 Designed for	프로그램 장점 Program Highlights	수업방법 Methods	재정지원 Financial Aid
대학	AABS	성서학과	60 학점 (2~3년)	진학 주일학교 교사	신학과 성경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여 주일학교 교사로 훈련	캠퍼스 온라인	**•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 ABHE, ATS 정회원 학교로서 영주권, 시민권 자격의 대학생은 연방 정부 FAFSA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다양한 학교 장학금 혜택** 본교진학 장학금 선교 장학금 음악 장학금 가족 장학금 목회자 장학금 Matching 장학금
	AACC	기독교상담학과	60 학점 (2~3년)	진학 목회상담 후보생	기초적인 기독교상담학의 사역자로 훈련		
	BABS	성서학과	126 학점 (4~6년)	대학원 진학, 목회자 후보생, 군종	기독교사역 전공을 통한 영성과 심성 발달		
	BACC	기독교 상담학과	126 학점 (4~6년)	기독교 상담자	기독교 상담학의 기초 정립과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상담 훈련		
	BAM	음악학과	130 학점 (4~6년)	반주자, 찬양사역자	성악, 기악, 키보드, 기타, 드럼, 작곡 전공의 음악사역자 양성	캠퍼스	
대학원	M.Div	목회학과	93 학점 (3~4년)	목사, 선교사, 군목, 교목, 원목, 평신도 지도자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신학과 인격의 훈련, 이민목회와 선교사 사역 기술 습득	캠퍼스 온라인	
	MAT	신학과	58 학점 (2~3년)	목회자, 성경연구원, 평신도 지도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사상과 흐름을 파악하여 바른 성경적 가치관 습득		
	MACC	기독교 상담학과	50 학점 (2~3년)	기독교 상담사역자 전문 상담사	신학과 상담의 통합적 접근, 한국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회가 수여하는 기독교상담사 자격증 취득	캠퍼스 온라인	
	MAM	음악학과	47 학점 (2~3년)	지휘자, 반주자, 찬양사역자, 교회음악지도자	체계적인 음악교육과 철저한 신앙교육, 클래식 연주자와 교회음악 사역자 양성	캠퍼스	
	D.Min	목회학 박사	34 학점 (3~6년)	담임목사, 선교사, 원목, 군목, 특수 목회, 강사, 교수	전문 사역 분야의 개발을 위한 최고 학위 과정, 현장 조사와 연구를 통한 목회 지도력 향상	캠퍼스 온라인	
	DCM	교회음악학 박사	48 학점 (3~6년)	지휘자, 반주자, 찬양사역자, 교회음악지도자, 교수	복음적인 교회음악 전문사역자와 사회음악 전문지도자 양성	캠퍼스	
수료증	ECE	유아교육 교사	15 학점	유아교육 교사	유아교육 교사 양성	캠퍼스 온라인	
		유아교육 원장	18 학점 24 학점 (재정지원)	유아교육 원장	유아교육 원장 양성, 유치원 설립		
	FCC	가정상담 사역자	18 학점	가정상담 사역자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가정상담 사역자 양성		
	WCC	WMU 상담교실	12주, 2학기	기독교 상담사역자 교회 상담사역자	그리스도인의 인격 성장과 인간관계, 하나님 형상 회복과 영적 성장을 돕는 훈련	캠퍼스	
	WBA	WMU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 한권, 매 학기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바른 성경해석학적 기초 위에서 성경의 원래 의미를 밝히는 훈련		